

# 忠烈王의 復位 과정을 통해 본 賤系 출신 관료와 ‘士族’ 출신 관료의 정치적 갈등 — ‘士大夫’의 개념에 대한 검토 —

金 塘 澤

I. 序 言

왕의 讓位

II. 忠烈王의 王權強化와 賤系 출신  
인물들의 政治的 地位 向上

IV. 元의 政治的 干涉 증대와 忠烈王  
의 復位

III. ‘士族’ 출신 관료의 불만과 忠烈

V. 結 語

## I. 序 言

高麗의 忠烈王은 두번이나 王位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는 그의 즉위 24年(1298) 正月에 世子인 忠宣王에게 讓位한 후 약 7개월 뒤에 다시 王位에 올랐던 것이다. 이는 歷史上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현상이었다.

忠烈王의 讓位나 復位는 元의 정치적 간섭 아래 이루어졌다.<sup>1)</sup> 그렇다고 元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얻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元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당시 高麗의 정치 상황이나, 그러한 정치 상황을 창출해 낸 정치세력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우리는 이 문제를

1) 사실 이 때문에 이러한 주제에 대한 접근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즉 元 干涉期 정치적 사건들의 해명에 학자들의 관심이 소홀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元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였다고 생각된다.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忠烈王의 讓位에서 復位에 이르는 기간은 불과 7개월이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정치적 변화만을 검토하면<sup>2)</sup> 忠烈王의 復位 과정이 드러나리라고 생각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급작스런 정치적 변화라도 그 이면에는 오랜 기간에 걸친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忠烈王이 讓位하기 이전의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나 그로 인해 빚어진 정치상황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忠烈王의 復位 과정을 해명해 보려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따라서 본고의 서술은 忠烈王의 復位에 영향을 미친 정치 세력의 성격을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士大夫에 대한 언급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武臣亂 이후 새롭게 정치 무대에 등장한 鄉吏 출신의 학자 관료들을 ‘士大夫’로 규정하고,<sup>3)</sup> 이들을 ‘權門世族’과 함께 元간섭 이후 高麗의 정치적 지배세력으로 이해하였다.<sup>4)</sup> 그런데 ‘士大夫’의用例를 검토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士大夫’는 文·武官僚를 지칭하는 용어로서<sup>5)</sup> 武臣亂 이전에도 사용되었다는 것이다.<sup>6)</sup> ‘士大夫’를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파악하기를 거부한 셈이다.

‘士大夫’를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이해하려 할 때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은 ‘士大夫’의 등장이 가능했던 시대적인 배경을 밝히는 일일 것이다. 이점이 간과되어 왔기 때문에 ‘士大夫’의 개념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

2) 이 시기는 忠宣王의 在位 기간이었다. 이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李起男, 「忠宣王의 改革과 詞林院의 設置」(『歷史學報』 52, 1971)가 참고된다.

3) 李佑成, 「高麗朝의 ‘吏’에 對하여」(『歷史學報』 23, 1964) pp. 24~25.

4) 閔賢九, 「高麗後期の 權門世族」(『한국사』 8, 국편위, 1974), 및 金潤坤, 「新與士大夫의 擡頭」(『한국사』 8, 국편위, 1974)

5) 李成茂, 『朝鮮初期 兩班研究』, 一潮閣, 1980 pp. 15~17. 金光哲, 『高麗後期 世族層과 그 動向에 관한 研究』(東亞大 博士學位請求論文, 1987) pp. 169~178

6) 朴龍雲, 李成茂著 『朝鮮初期 兩班研究』 書評(『亞細亞研究』 66, 1981), p. 300.

忠烈王의 復位 과정을 통해 본 賤系 출신 관료와 '士族' 출신 관료의 정치적 갈등 197  
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士大夫’를 정치 세력으로 파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士大夫’가 元의 간섭 이후 특히 빈번하게 史書에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언급은 있어야 할 것이다. ‘士大夫’가 단순히 관리들을 지칭하는 것이었다면, ‘文·武兩班’ 등의 표현 대신 왜 ‘士大夫’라는 용어가 자주 쓰였는가 궁금한 것이다. 결국 ‘士大夫’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그러한 용어의 등장 배경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때 가능하다고 믿는다.

본고에서 행하여질 忠烈王代 정치적 지배 세력의 성격에 대한 검토는 ‘士大夫’의 등장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高麗의 정치적 변화에 元이 어떻게 대처했는가도 본고의 논리 전개상 생략될 수 없는 부분이므로 麗元 관계의 전개에 대해서도 하나의 전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Ⅱ. 忠烈王의 王權強化와 賤系 출신 인물들의 政治的地位 向上

忠烈王代에 賤系 출신 인물들의 정치적 진출이 두드러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에 속한다. 忠烈王代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에 관해서 언급해왔던 것이다.<sup>9)</sup> 이 논문들에서는 그들이 대체로 鷹坊·譯官·宦官·內僚 등에 소속되어 있었음이 지적되었다. 아울러 그들이 국왕의 측근세력으로 서<sup>9)</sup>, 忠烈王의 총애를 받았기에<sup>10)</sup>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도 밝혀

7) 李泰錫, 「高麗末·朝鮮初의 社會變化」(『震檀學報』 55, 1983), p. 2 및 金塘澤, 「高麗時代 回顧와 展望」(『歷史學報』 104, 1984)에서도 士大夫의 개념에 대한 기존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8) 李起男, 前揭論文 pp. 62~65. 閔賢九, 前揭論文 pp. 24~25. 黃雲龍, 「賤流顯官考」(『釜山史學』 4, 1980) pp. 36~48. 洪承基, 「元의 干涉期에 있어서의 奴婢出身 인물들의 政治的 進出」(『韓國史學』 4, 1983; 『高麗貴族社會와 奴婢』, 一潮閣, 1983) pp. 345~351. 李益柱, 「高麗 忠烈王代의 政治狀況과 政治勢力의 性格」(서울대 『韓國史論』 19, 1988) pp. 188~197.

9) 李益柱, 上揭論文 pp. 188~200.

10) 洪承基, 前揭論文 pp. 369~374.

졌다.

필자도 이러한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이를 다시 거론한 것은, 忠烈王이 왜 賤系 출신 인물들을 측근으로 삼았으며, 그러한 이후의 정치적 결과는 어떠했는가 하는 점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한 때문이다. 이에 대한 검토는 기왕의 결론을 보강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는데도 보탬이 될 것이다.

필자는 賤系출신으로서 忠烈王의 讓位 이전에 고위직에 오른 인물들의 출세 경로를 중심으로 表를 작성해 보고 이를 토대로 설명을 진행하려고 한다. 굳이 忠烈王의 讓位 이전에 고위직에 올랐던 인물들로 그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본고가 忠烈王의 복위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후 고위직에 올랐던 인물들은 본고의 논리 전개에 꼭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필자가 사용한 賤系는 편의상 限品の 대상이 된 신분을 의미한다. 그리고 고위직의 기준은 5品 이상으로 하였다. 이 역시 필자의 편의에 따른 것인데, 高麗時代에는 5品과 그 이하를 구분한 예가 적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선 李貞과 朴義에 관해서 알아보자. 賤隸 출신의 李貞이 副知密直司事に 오른 것이나, 郜曲 출신의 朴義가 知密直司事に 올랐던 것은 그들이 鷹坊에 소속되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鷹坊이 元에 매를 진상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였음<sup>11)</sup>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① 王與公主獵于德水縣東北有馬提山 王嘗命構草屋數間 及是率忽赤·鷹坊各五十人 往獵其地 (高麗史節要 19 忠烈王 2年 8月)

라 한 기록이나,

11) 內藤雋輔, 「高麗時代の鷹坊について」 (『朝鮮學報』 8, 1955: 『朝鮮史研究』, 1961) p. 323.

忠烈王代 關係 忠烈王 政治的 忠烈王

姓名	出身	出世 世系	忠烈王과의 關係	忠烈王 最 高 官 職	典 據
李 貞	賤隸, 屠狗爲業	鷹坊에 소속됨	忠烈乳媪女婿	副知密直司事	高麗史 124 李貞傳
朴 義	歸化部曲人(密城) 家奴	"	"	知密直司事	124 朴義傳
康九紹	其先皆爲部曲吏	解蒙古語 習蒙語	"	判三司事	123 康九紹傳
柳清臣		宦者가 됨	"	同知密直司事, 監察大夫	125 柳清臣傳
陶成器		"	"	將軍	122 崔世延傳
崔世延		"	"	"	"
李 淑		"	"	封壁上三韓正匡	122 李淑傳
金子廷	家奴	內原가 됨	親從將軍	上將軍, 東京副使	89 后妃 齊國大長公主傳, 30 忠烈王 11年 8月 戊申
車得珪		"	侍從一等功臣	將軍	104 金周鼎傳, 29 忠烈王 8年 5月 庚申
李之丘		"	"	三司左使	123 李之丘傳
金義光	忠州官奴	"	"	(密直副使)	" 104 金周鼎傳
宋 均	合德官奴	"	"	護軍	125 宋邦英傳
高宗秀		"	"	(三司左使)	123 李之丘傳 附 高宗秀傳
劉福和		"	隨從有功	密直副使, 判禮賓寺事	123 權臣傳, 33 忠烈王 24年 忠宣王 即位 6月 戊戌
石 寅		"	侍從一等功臣	(密直司事)	125 吳楷傳 附 石胃傳
丁伍孚	靜州官奴	林符의 廢立 忠烈 王에 對 峙 함	"	將軍	26 元宗 10年 7月 丁卯, 29 忠烈王 8年 5月 庚申

② 令忽赤·鷹坊三品以下 佩弓箭 輪次入直(高麗史 82 兵志 2 宿衛 忠烈王 13 年 閏 2 月)

을 대하면, 鷹坊의 기능이 단순히 매를 잡는데 그쳤던 것만은 아님을 직감할 수 있다. 국왕의 사냥에 鷹坊이 忽赤와 함께 동원되었다거나(①), 鷹坊의 3品 이하가 弓箭을 차고 번갈아 入直했다(②)는 사실은 鷹坊이 군사적인 기능을 갖춘 국왕의 侍衛部隊로서의 역할도 수행한 기구였음을 알려준다.

鷹坊의 설치는 高麗의 請에 의해 이루어졌다. 高麗가 元에게 鷹坊의 설치를 요청했던 것이다.<sup>12)</sup> 매를 잡아 진상한다는 명목이었다. 그러나 鷹坊이 단순히 매만을 잡기 위해 설치된 기구였다면, 이의 설치를 元에 요청했다거나 또한 이 기구가 국왕의 侍衛部隊화한 이유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忠烈王은 애초부터 鷹坊을 侍衛部隊로 삼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궁금한 것은 忠烈王이 왜 하필 鷹坊을 자신의 侍衛部隊로 삼으려 했는가 하는 점이다. 鷹坊의 설치에 元이 무관하지 않았던 만큼, 忠烈王과 元의 관계에 대한 검토는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忠烈王은 元宗 15 年(1274), 元 世祖의 女인 忽都魯揭里迷失公主, 즉 齊國大長公主와 혼인하였다. 元 世祖의 附馬가 되었던 것이다. 이 혼인을 통해 忠烈王은 元의 정치적인 후원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sup>13)</sup>

그러나 元의 정치적 후원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는 것이었다. 元은 忠烈王이 高麗 國內에서 專權을 행사하도록 방치하지 않았다. 忠烈王에 대한 견제가 뒤따랐던 것이다. 達魯花赤의 존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忠烈王 2 年) 有人投匿名書于達魯花赤石末天衢曰 齊安公淑·金方慶等四十三人 謀不軌 復入江華 天衢囚淑及方慶等 令宰相雜問之 (高麗史 104 金方慶傳)

12) 鷹坊 請於帝而置之 (『高麗史』 123 印侯傳)

13) 金成俊, 「高麗後期 元公主出身王妃의 政治的 位置」 (『韓國中世政治法制史研究』, 一潮閣, 1985) p. 153.

金方慶 등이 元에 반기를 들고 江華로 들어가려 한다는 내용의 匿名書가 達魯花赤에게 전해졌다. 이에 達魯花赤는 淑과 金方慶 등을 가두었다는 것이다. 高麗의 宗室과 宰相이 元의 관리에 의해 구금되었다는 것은 高麗의 內政에 元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sup>14)</sup>

이러한 상황에서 忠烈王이 자신의 독자적인 세력을 확보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뒤따랐을 것이다. 忠烈王은 元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했을 것이다. 鷹坊은 忠烈王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었다. 매사냥을 빙자하여 군사훈련이 가능한 기구가 鷹坊이었다. 또한 매를 잡아 바친다는 명분은 高麗 國內는 물론이거니와 元에서도 묵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元帝의 매에 대한 관심<sup>15)</sup>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결국 元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王權을 강화하기 위해 忠烈王은 鷹坊을 侍衛部隊로 이용했다고 할 수 있다.

매를 잡거나 국왕을 侍衛하는 데는 家門이나 학식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勇力の 유무가 중시되었을 것이다. 李貞이 勇力으로 이름이 났거나 李珣이 말타고 활쏘기를 잘하였기에<sup>16)</sup> 鷹坊에 소속되었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따라서 鷹坊은 賤系の 인물들이 소속될 수 있는 기구였다. 賤系の 李貞·朴義가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康允紹나 柳清臣은 모두 蒙古語에 능통하였다. 이들은 譯官으로서 출세

14) 池內宏은 「高麗に駐在した元の達魯花赤について」(『滿鮮史研究』中世 三冊, 1963) p. 116에서 達魯花赤가 高麗의 內政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高麗史 世家에 나타난 達魯花赤에 관한 기록만을 검토한 후 내린 결론이다.

15) 內藤萬輔, 前掲論文 pp. 310~314 참조. 또한

宰相白王 請去鷹坊之弊 王怒 欲請回回之見信於帝者以來 分管諸道鷹坊 抑令宰相 不敢復言(下略)(『高麗史』29 忠烈王 6年 3月 壬寅)

이라 하여, 매를 잡는 자들 가운데 元帝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16) 李貞 本賤隸也 常屠狗爲業 以勇力聞(『高麗史』124 李貞傳)

(李)珣 好勇 善騎射(同上 附 李珣傳)

했던 것이다. 그런데 譯官은 전통적으로 文臣들의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던 듯하다. 賤系의 인물들이 주로 이 직에 종사했던 것이다. 이는

時譯者多起微賤 (高麗史節要 19 忠烈王 2年 5月)

이라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실 對外관계의 전개가 국내의 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한, 譯官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忠烈王 즉위 이후의 사정은 이와는 달랐다. 元과의 관계가 국내의 정치 상황을 결정하는 하나의 변수로 작용했던 것이다. 통역을 담당한 譯官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들의 응대 여하에 따라 忠烈王의 지위는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었다. 忠烈王은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이들을 重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舌人爲內侍 自金天固始 (高麗史節要 20 忠烈王 4年 7月)

라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譯官을 內侍에 소속시켰는데, 이는 그들을 자신의 측근세력으로 만들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譯官은 內侍에 소속되므로써 순조롭게 자신들의 지위를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학식과 가문이 뛰어난 인물들이 소속될 수 있었던 內侍<sup>17)</sup>는 출세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구였던 것이다. 요컨대 康允紹·柳淸臣 등의 譯官들은 對元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한 忠烈王의 특별한 비호에 힘입어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陶成器·崔世延·李淑 등은 宦官이었다. 宦官은 叅職에 임명될 수 없었다. 毅宗時 宦官 鄭誠의 叅職 계수를 둘러싸고 毅宗과 臺諫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실은 이와 관련하여 참고된다.<sup>18)</sup> 따라서 그들은 대체로 6品

17) 周藤吉之, 「高麗初期の内侍・茶房と明宗朝の武臣政權との關係」—宋の内侍・茶房との關連について— (『東方學』 55, 1978: 『高麗朝官僚制の研究』, 1980) pp. 479~481.

18) 李應喆, 「高麗時代의 宦官에 對하여」 (『史學研究』), 1, 1958) p. 27 참조.

忠烈王의 復位 과정을 통해 본 賤系 출신 관료와 '士族' 출신 관료의 정치적 갈등 203  
이상은 오를 수 없었던 것이다.<sup>19)</sup>

이러한 宦官들이 忠烈王代에 이르러서는 將軍에 제배되는가 하면, 功臣에 책봉되기도 했다. 宦官의 정치적 역할이 증대되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데, 다음의 기록은 그러한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李淑 小字福壽 平章郡人 母太白山巫女 淑有寵於忠烈 封壁上三韓正匡平章君 選入元爲太監 王有所奏請 淑有功 王待甚厚 (高麗史 122 李淑傳)

忠烈王代의 宦官이었던 李淑은 元의 宦官으로 선발되어 元에서 太監職을 제수받았다. 李淑은 忠烈王이 元帝에게 奏請하는 일이 있을 경우 그를 도왔다는 것이다. 元의 宦官이 高麗 정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기록인데, 여기에서 李淑으로 하여금 忠烈王의 奏請을 돕도록 하는 데는 高麗 宦官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된다. 高麗 국내의 인물들로서 元의 宦官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들은 아무래도 그들과 처지가 비슷한 宦官들이었을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특히 李淑과 같이 高麗출신으로 元에서 활동한 宦官들과<sup>20)</sup> 高麗의 宦官들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을 것이다. 이처럼 宦官들은 元 宦官과의 관계를 통해 忠烈王에게 정치적으로 기여했다고 생각된다. 한편 忠烈王은 宦官들의 직위를 높임으로써 그들을 元 宦官의 상대역으로 내세웠던 것 같다.

앞의 表에서, 金子廷에서 石膏에 이르는 인물들은 內僚였다.<sup>21)</sup> 內僚가 빈번하게 史書에 등장하는 것은 忠烈王代 이후였다. 忠烈王은 즉위와 더불어

毅宗이 鄭誠에게 제수하려 했던 權知關門祗候는 叅職이었다.

- 19) 6品 이상의 모든 관직이 叅職이었던 것은 아니다. 5·6品 가운데도 叅職이 아닌 관직이 있었던 반면, (金成俊, 「高麗史 選舉三 譯註」(一), 『湖西史學』 5, 1977, p. 104, p. 106 참조) 7品에도 叅職이 있었던 것이다. 關門祗候·權知關門祗候 등이 그것이다.
- 20) 李淑 외에 方臣祐·任伯顔禿古思도 高麗人으로서 元의 宦官이 되었다. (『高麗史』 122 方臣祐傳 및 任伯顔禿古思傳) 따라서 기록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들 외에도 高麗人으로서 元의 宦官이 된 인물들은 많았다고 생각된다.
- 21) 內僚에 대해서는 洪承基, 前揭論文 pp. 363~368 참조.

① 侍從入元臣僚 並加賞賚 限品者許通 (高麗史 28 忠烈王 即位年 9月 壬辰)

이라 하여 入元時 그를 侍從한 인물들에 대한 포상부터 실시하였다. 「侍從入元臣僚」의 정치적 지위를 높이려는 忠烈王의 의도는 限品者에게 仕路를 許通한 것에서 엿볼 수 있는데,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가는 다음의 기록이 알려준다.

② 己巳年東歸 至婆娑府 聞變還朝 侍從輔佐將軍鄭伍孚·鄭仁卿·車得珪·李之氏·大府尹金應文·郎將金義光爲一等功臣 (中略) 各賜田民 (高麗史 21 忠烈王 8年 5月 庚申 敎曰)

忠烈王은 元宗 10年(1269), 太子로서 入元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 元行에서의 귀국도중 그는 父王인 元宗이 權臣 林衍에 의해 廢位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시 발길을 元으로 돌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위의 기록에 보이는 功臣冊封은 이때 그를 侍從한 인물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은 史料 ①의 「侍從入元臣僚」와 다를 바 없는 자들이다.

②의 기록에서, 功臣에 冊封된 인물들의 대부분은 內僚 출신이었다. 즉 一等功臣 6名 가운데 3名이 內僚 출신이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車得珪·李之氏·金義光이 그들이다. 元宗이 廢位되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忠烈王을 侍從한 인물의 대부분은 內僚였던 셈이다.<sup>22)</sup>

內僚 가운데는 奴隸 출신이 있었다. 忠州官奴였다는 金義光이나 舍德官奴 출신의 宋均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설사 奴隸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출신은 보잘것 없었다. 內僚는 東·西班의 관직은 차지할 수 없었고, 南班으로 진출한 경우라도 7品 이상은 오를 수 없는 限品の 대상자였던 것이다.<sup>23)</sup> 이러한 內僚가 출세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22) 洪承基, 前掲論文 p. 370. 金惠苑, 「忠烈王 入元行續의 性格」(『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1986) p. 810.

23) 『高麗史』 75 選舉志 3 銓注 限職 忠烈王 2年 閏3月.

忠烈王의 復位 과정을 통해 본 賤系 출신 관료와 '士族' 출신 관료의 정치적 갈등 205  
국왕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바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sup>24)</sup>

한편 당시 文·武 관료들의 입장은 內僚와는 달랐다고 생각된다. 비록 忠烈王을 따라 入元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출세를 忠烈王에게 의존할 수단은 없는 상황이었다. 權臣에 의해 元宗이 廢位되고 새로운 인물이 국왕에 올립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그들이

林衍構亂 危社稷 從臣震驚 莫知所圖 (高麗史 107 金富允傳)

라 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것은 매우 적절한 묘사가 아닌가 한다. 그들의 능력이나 家門의 배경은 그들로 하여금 장래가 불확실한 忠烈王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忠烈王이 이러한 사정을 간과하지 못했을 리 없다. 그가 즉위와 더불어 그를 侍從한 內僚의 功을 높이 평가했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는 것이다. 忠烈王代 內僚의 정치적 지위에 관해서는 다음이 참고된다.

舊制凡國家事 宰樞會議 承宣稟旨而行 (金)周鼎言 今宰樞甚多 謀政無主 宜別置 必關赤 委以機務 又內僚不可皆令啓事 請擇人爲申聞色 罷其餘 令廉承益·李之氏 議王 遂置必關赤·申聞色 周鼎及余文學事朴恒·密直副使薛公儉·左承旨李奪庇·判禮賓事廉承益·大將軍印公秀·趙仁規·秘書尹鄭興·內侍將軍李之氏·寶文閣待制郭預·大府少尹安馱·千牛衛錄事李予芬(混)·詹事府錄事尹文玉(珩)·大常府錄事鄭玄繼璫爲必關赤 內僚郎將鄭承伍·金義光·姜碩·李怒·河訥爲申聞色 常會禁中 余決機務 時號別廳宰樞 以非祖宗舊制 人多譏議 (高麗史 104 金周鼎傳)

必關赤와 申聞色の 설치를 알려주는 忠烈王 4年(1278)의 기록이다. 金周鼎이 국왕에게 건의하여 설치된 것이 必關赤였다. 宰樞의 수가 많아 政事를 주관하는 사람이 없으니, 必關赤를 설치하여 宰樞會議의 기능을 대신하자는 것이었다. 이와 아울러 內僚 가운데 일부로 申聞色을 삼았는데, 이들은 必關赤의 결정사항을 국왕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맡았다는 것이 위 기록의 내용이다.

24) 洪承基, 前揭論文 pp. 398~399.

위 기록에 따르면, 必闡赤는 단순히 宰樞의 기능만을 대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必闡赤가 政房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sup>25)</sup> 필자도 여기에 동감이다. 다만 부연하고 싶은 것은 必闡赤가 政房을 개편한 것<sup>26)</sup>이 아니라, 政房 내에 人事行政과 아울러 宰樞會議의 기능까지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必闡赤였다고 생각되는 것이다.<sup>27)</sup>

金周鼎은 必闡赤의 설치 이유로 宰樞의 수가 많다는 것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것이 必闡赤를 설치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必闡赤를 설치한 데는 보다 절실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必闡赤에 임명된 인물들에 대한 분석은 이와 관련하여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必闡赤에 임명된 인물들에 대한 분석은 기존의 연구에서 행해진 바 있다. 이에 따르면 必闡赤 14人 가운데, 10人이 登科者인데, 그들은 뛰어난 가문의 출신이 아니었다 한다.<sup>28)</sup> 그들은 가문보다는 개인의 능력에 힘

25) 李起男, 前揭論文 pp.78~81.

26) 同上, 必闡赤가 만일 政房을 개편한 것이었다면, 必闡赤의 설치 이후에는 政房의 명칭이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27) ① (李混) 嘗與鄭瑋·尹珣在政房 (『高麗史』108 李混傳)이라는 기록이나 ② (安戩) 戩托內僚李之岳 入政房 以大府少尹爲必闡赤 (『高麗史』106 安戩傳)라는 기록은 이와 관련하여 참고된다. 李混·鄭瑋·尹珣(①)와 安戩(②)은 모두 忠烈王 4년에 必闡赤가 되었던 인물들인데, 이들은 政房에 있었다거나 (①), 政房에 들어갔다(②)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鄭可臣의 경우도 秘書尹으로 必闡赤가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在政房」으로 표기하였다(朴龍雲, 『高麗의 中樞院研究』, 『韓國史研究』12, 1976, p.128 참조).

한편 『高麗史』75 選舉志 3 銓注 選法 高宗 12년에는 崔瑀가 文士를 선발하여 政房에 소속시켰는데, 이들을 必闡赤라고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런데 必闡赤는 蒙古語이다. 元과 외교관계가 성립하기도 전에 元의 제도를 고려에서 모방했을 까닭이 없다. 金成俊氏의 지적대로, 忠烈王 4년의 必闡赤 설치 기사를 소급해서 기술했다고 생각된다. (金成俊, 「高麗政房考」, 『韓國中世政治法制史研究』 p.213)

28) 李起男, 前揭論文 pp.81~82, 金光哲, 高麗 忠烈王代 政治勢力的 動向 一忠烈王初期 政治勢力的 變化를 中心으로一 (『昌原大論文集』 7-1, 1985) pp.157~159.

입어 必關赤에 뽑힌 인물들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必關赤에 文臣 아닌, 大將軍 印公秀와 趙仁規, 그리고 內侍將軍 李之珪가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宰樞도 아니며, 그렇다고 학문적 소양을 갖추었다고는 더우기 생각되지 않는 인물들이다. 忠烈王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必關赤이 되었던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sup>29)</sup> 그들은 忠烈王과 밀착된 인물들이었던 것이다. 趙仁規가 譯官 출신이었으며 李之珪가 內僚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가문의 배경이 없는 과거 출신자나 국왕과 밀착된 인물들이 必關赤의 구성원이었다는 사실은 곧 이 기구가 忠烈王의 정치적 의도 아래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忠烈王은 宰樞會議와 政房을 장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政房에 必關赤을 설치하고 여기에 자신의 측근 세력을 참여시켰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 기구가 禁中, 즉 宮闕에서 항시 회합을 가졌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요컨대 必關赤은 忠烈王의 王權強化를 전담한 기구였다고 생각된다.<sup>30)</sup>

일찌기 忠烈王은 元으로부터 귀국 도중 林衍의 元宗 廢位 사실을 전해 듣고 元으로 발길을 돌리었다. 수십년 동안 高麗를 괴롭혀 온 元에 의지하기 위함이었다.<sup>31)</sup>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세력은 高麗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앞의 表 맨 마지막에 보이는 丁伍孚가 아니었다면, 忠烈王은 父王의 廢位 사실조차 몰랐을런지 모른다. 그는 權臣에 의해 좌우되는 국왕의 처지를 철저히 인식했을 것이다. 王權을 강화하는 길만이 이러한 비운을 맞보지 않는 길임을 그가 느끼지 않았을 리 없다.<sup>32)</sup>

그러나 忠烈王의 王權強化에는 적지 않은 장애가 뒤따랐다. 앞서 지적

29) 金光哲, 上揭論文 p. 158.

30) 同上論文, p. 160.

31) 『高麗史節要』 18 元宗 10年 7月.

32) 忠烈王의 王權強化 노력에 대해서는 金光哲, 「高麗 忠烈王代 政治勢力의 動向」 pp. 155~161 및 邊東明, 「高麗 忠烈王代의 萬戶」(全南大碩士學位請求論文 1988) pp. 8~10. 참조.

한 바 있듯이, 그는 元의 태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국내 정치 세력의 규합도 쉬운 일만은 아니었던 듯하다.

王與公主至京 入御竹坂宮 先是俞千遇謂張鎰曰 王若以戎服入城 國人驚恠 乃使崔文本·朴恒 請王以禮服入 又使康允紹·簡有之再請 王不聽 (高麗史 28 忠烈王即位年 11月 丁丑)

元宗의 死後, 王位를 계승하기 위해 還國한 忠烈王은 辮髮에 元의 복장이었다. 이러한 국왕의 복장에 國人이 놀랄 것을 두려워 한 俞千遇 등은 禮服을 입을 것을 청하였으나 忠烈王은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忠烈王이 元의 복장을 고집한 것은, 그가 元의 정치적 후원을 받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한편 俞千遇 등이 국왕의 복장에 國人이 놀랄 것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元을 등에 업은 忠烈王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은 忠烈王에게 異質感마저 느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忠烈王의 王權強化에 적극적일 수 있는 인물들은 그의 측근들이거나 신진관료들이었을 것이다. 必闡赤의 구성원이 신진관료와 內僚·譯官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必闡赤와 함께 설치된 申聞色은 必闡赤의 결정사항을 국왕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담당한 기구였다. 宰樞會議의 결정 사항을 국왕에게 보고하는 것은 承宣의 임무였는데, 必闡赤가 宰樞會議의 기능을 대신함에 따라 申聞色이 承宣의 기능을 대신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申聞色은 內僚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內僚가 承宣의 역할을 대신한 셈이다. 이후 內僚의 정치적 지위는

承旨缺 (閔)董及李德孫·權宣 皆附內僚求之 (高麗史 123 林貞紀傳)

라 할 정도였다. 承宣의 임명에 內僚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內僚는 必闡赤와 申聞色을 통해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갔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限品の 대상이 된 인물로서 忠烈王의 讓位 이전에 5品 이상

忠烈王의 復位 과정을 통해 본 賤系 출신 관료와 ‘士族’ 출신 관료의 정치적 갈등 209  
 의 관직에 오른 자들을 중심으로, 忠烈王代 賤系 출신 인물들의 정치적 진출이 가능했던 이유를 알아보았다. 忠烈王의 讓位 이전 5品 이상에 오른 인물로 검토의 대상을 한정했기에 그 수는 얼마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취급한 인물들의 경우만을 통해서도, 이들 외에 다수의 賤系 출신 인물들이 정치적으로 득세했음을 아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결국 忠烈王代 賤系 출신 인물들이 정치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忠烈王의 王權強化에 커다란 기여를 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賤系 출신 인물들의 득세에 일반 관료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 궁금하다. 장을 달리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자.

### Ⅲ. ‘士族’ 출신 관료의 불만과 忠烈王의 讓位

忠烈王은 과거 출신 관료들에게 적지 않은 관심을 표시하였다. 그가 직접 殿試를 주관하여 9人的 합격자를 선발했다거나,<sup>33)</sup> 必關赤의 구성원 14人 가운데 10人이 과거합격자였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그런데 과거 출신 관료에 대한 忠烈王의 관심은 특정한 인물에 국한되어 있었다. 다음을 대하면 알 수 있는 일이다.

李尊庇·安珦·安猷·李混 皆(柳)璈門生 (高麗史 105 柳璈傳)

李尊庇·安珦·安猷·李混은 모두 柳璈의 門生이었다고 하는데, 이들 가운데 安珦을 제외한 3人은 忠烈王 4年에 함께 必關赤가 되었다. 安珦 또한 忠烈王代에 순탄한 출세를 했던 인물이다.<sup>34)</sup> 忠烈王이 柳璈의 門生을 특히 重用했다고 할 수 있는데, 柳璈이 그와 밀착되었던 점을 감안하

33) 『高麗史』 29 忠烈王 6年 5月 癸卯. 이때 합격한 인물들의 명단과 그들의 家系에 대해서는 李益柱, 「高麗 忠烈王代의 政治狀況과 政治勢力의 性格」 p. 212 참조.

34) 『高麗史』 105 安珦傳 참조.

년<sup>35)</sup> 무리가 아니다. 座主와 門生의 관계로 미루어 이들의 정치적 성격은 동일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柳璥의 門生 3인이 소속된 必闡赤는,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忠烈王의 王權強化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기구였다. 그렇다면, 忠烈王의 과거 출신 관료에 대한 관심은 결국 그의 王權強化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그가 殿試를 주관한 것도 여기에서 선 발된 인물들을 자신의 심복으로 삼고자 했던 데에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殿試에 합격한 인물들을 즉시 內侍에 소속시켰는가 하면,<sup>36)</sup> 후일 그들 가운데 權溥·趙簡·金台鉉 등으로 하여금 銓注를 담당케 했다는 것<sup>37)</sup>이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忠烈王의 王權強化에는 앞장에서 검토한 賤系 출신 인물들 이외에 과거 출신 관료들도 커다란 기여를 했음이 확인된 셈이다.

忠烈王의 과거 출신 관료에 대한 관심이 자신의 王權強化 의도에서 비롯된 만큼, 忠烈王에 의해 발탁된 인물들은 소수에 불과했을 것이다. 王權強化를 위해서는 소수에 의한 측근정치를 행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sup>38)</sup>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대부분의 관료들은 정치적으로 소외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忠烈王에 의해 발탁된 과거 출신 관료라 하더라도 국왕의 총애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賤系 출신 관료들에게 우위를 양도해야 했던 듯하다. 과거 출신의 安戩이 內僚 李之氏에게 의탁했기에 政房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sup>39)</sup> 짐작할 수 있는 것이

35) 忠烈王과 柳璥의 관계에 대해서는

(忠烈王 四年) 是年 上章之退 以匡靖大夫·兪讓中贊·修文殿大學士·監修國史·上將軍·判典理司事·世子師致仕 自是凡有內宴 王必召命 (『高麗史』 105 柳璥傳)

이라는 기록이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柳璥이 致仕할 이후에도, 忠烈王은 內宴이 있을 경우 반드시 그를 불렀다는 것이다.

36) 『高麗史』 29 忠烈王 6年 5月 癸卯.

37) (金台鉉) 與權溥·趙簡 典銓注 (『高麗史』 110 金台鉉傳)

38) 忠烈王代の 정치 형태를 측근 정치로 이해한 논고로는 金光哲, 「高麗 忠烈王代 政治勢力의 動向」 pp. 22~23 및 李益柱, 前掲論文 pp. 200~203 이 있다. 한편 洪承基氏는 前掲論文 p. 392에서 이시기의 정치 형태를 寵臣制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피력했다.

다. 당시의 관료들이 賤系 출신 인물들의 득세에 반발했음은 당연하다.

① (忠烈王 2年) (李)仁挺爲正言 與諸郎舍言 近內豎微賤者 皆以隨從之勞 許通仕途 雜廁朝班 有乖祖宗之制 請收成命 王怒 欲觀所爲 陽許之 既而復收其狀 郎舍不即從 王囚詔文主事柳與 命仁挺勿視事 竟取其狀 批曰 勿改成命 (高麗史 106 秋適傳 附 李仁挺傳)

② 郎舍以無功有世界者多拜官 不署告身 王屢命署之不從 王怒 命忽赤崔崇 遠司議大夫白文節 (高麗史 28 忠烈王 4年 4月 己未)

郎舍들은, 忠烈王이 그를 侍從했다는 것만으로 內豎微賤者들에게 仕路를 許通한 데 대해,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上書를 올렸다(①) 한다. 여기의 內豎微賤者는 곧 內僚인데, 忠烈王은 이러한 건의를 받아들이지는 커녕 郎舍로 하여금 일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②의 기록에 따르면, 身分에 하자가 있는 인물들의 告身에 郎舍가 暑經을 거부하자, 王은 郎舍를 잡아 가두었다 한다. 이때 채포된 郎舍는 白文節 외에도 司議 金楮·給事中 金之瑞·典書 崔守瓚·中舍郎 李益培·司諫 李行儉·李仁挺·正言 鄭文·張碩 등이 찾아진다.<sup>40)</sup>

賤系 출신 인물들의 仕路를 한정시키자는 것은 곧 그들의 정계진출을 억제하려는 것과 같은데, 이를 주장한 관료들은 주로 諫官이었다. 그렇다고 이들만이 賤系 출신 인물들의 정치적인 진출을 반대했다고는 할 수 없다. 賤系에게 仕路를 許通함으로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물들은 모두 여기에 불만을 품었을 것이다.<sup>41)</sup> 諫官은 이들의 불만을 대변하는 데 불과했다고 생각된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가 궁금한데, 관도에 진출하는 데 아무런 신분적인 제약을 받지 않았던 계층의 인물들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지우기 어렵다.

賤系 출신 인물들의 정계 진출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어찌

39) 『高麗史』 106 安敬傳.

40) 『高麗史』 106 白文節傳 참조.

41) 賤系 출신 인물들의 정치적 진출에 당시인들의 반발이 컸다는 점은 洪承基, 前掲論文 pp. 392~397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한 계층이었는데가를 아는 데는 다음의 기록이 참고된다.

(金)開物 字元龜 屢舉不第 忠宣爲世子 時(金)暉以二子見 忠宣愛開物 待之有加 及嗣位 擢監察史 遷典符寺丞 時內府令姜融 有求於開物 不獲 怒歐之 開物罵曰 汝本奴隸 敢辱士族耶 融銜而譴之 下巡軍鞠之 (高麗史 106 金暉傳 附 金開物傳)

內府令 姜融의 구타를 당한 金開物은 「너는 본시 奴隸인데 어찌 감히 士族을 욕보일 수 있느냐」고 姜融을 꾸짖었다 한다. 金開物이 奴隸라고 한 姜融은 官奴 출신이었다.<sup>42)</sup> 한편 姜融의 신분을 들어 그를 공격한 金開物은 자신을 ‘士族’으로 표현했다. 따라서 ‘士族’은 金開物의 신분을 나타내는 용어였다고 할 수 있다.

金開物이 자신을 ‘士族’이라고 했던 것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은 주목된다.

金暉 字用晦 義城縣人也 父諱閣 秘書郎 (中略) (暉)二十登士板 (中略) 登乙科 第三人及第 (中略) (官至)匡濟大夫政堂文學寶文閣大學士同修國史 (韓國金石文追補 p. 215 金暉墓誌銘)

金開物의 父 金暉이 나이 20에 士板에 올랐다는 것이다. 士板은 士版, 즉 士籍을 의미한다.<sup>43)</sup> 여기에 오른 인물들과 ‘士族’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士籍에 오른 인물들의 가족이 곧 ‘士族’이었다고 생각된다.

高麗時代에는 國子監試에 합격하는 것만으로 士籍에 오를 수 있었다 한다.<sup>44)</sup> 과거에 합격하기 이전에 士籍에 올랐다는 金暉의 경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필자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金開物이 그의 父가 國子監試에 합격한 것을 들어 자신을 ‘士族’이라고 내세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의 父의 관직이 政堂文學에 이르렀거나 祖父가 秘書郎을 역임한 인물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러하다. 金開物

42) 洪承基, 前揭論文 p. 437.

43) 許興植, 「高麗의 國子監試와 이를 통한 鄉史의 身分上昇」(『高麗科擧制度史研究』, 一潮閣, 1981) p. 144.

44) 同上.

忠烈王의 復位 과정을 통해 본 賤系 출신 관료와 ‘士族’ 출신 관료의 정치적 갈등 213  
 의 父와 祖父가 모두 관리였던 점이 그로 하여금 자신을 ‘士族’이라고 내  
 세울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士族’이라는 용어는  
 士籍에 오른 인물의 가족이라는 의미보다는 관리가족이라는 의미로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다음을 참고해 보자.

以尹碩爲中贊 宋瑞爲監察大夫 朴連爲典理判書 連居母喪 娶妻 每入見 王不之咎  
 嘗有僧白王曰 官寺之奴 或有拜高官大職者 不可與士族齒 王怒曰 以吾愛朴連耶 連  
 聞之涕泣 王賜酒 慰諭之 (高麗史節要 25 忠惠王 元年 8月)

朴連이 典理判書에 제배되자, 한 승려가 국왕에게 「官寺의 奴로서 高官  
 大職에 제배된 자가 있는데, 士族과 더불어 나란히 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士族’만이 관리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官寺의 奴가 끼여든 것  
 은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士族’은 관리가 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신분적  
 인 제약을 받지 않은, 관료계층을 지칭했던 것이다.<sup>45)</sup>

金開物과 그의 父 金暉은 文臣이었다. 따라서 文臣 관료 계층만을 ‘士  
 族’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런데

(姜融) 忠宣時 拜內府令 妹爲巫 食松岳祠 大護軍金直邦 以其所善巫代之 融不可  
 直邦罵融曰 汝是官奴 何驕乃爾 (高麗史 124 鄭方吉傳 附 姜融傳)

라는 기록을 대하면, ‘士族’에는 武班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이해해야 될  
 듯하다. 大護軍 金直邦의 신분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설명이 없다. 다만  
 그가 姜融의 신분을 들어 그를 비난했던 것으로 미루어 그에게 신분적 결  
 함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 역시 ‘士族’ 출신이었을 것이다.  
 사실 이 시기가 되면 文臣의 자손이 武班으로 出仕한 것은 물론, 과거 함  
 격자가 武班으로 진출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文班과 武班을 별개의 신분  
 계층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관리가 되는 데 있어  
 신분적인 결함이 없는 武臣은 당연히 ‘士族’ 출신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

45) ‘士族’의 개념에 대해서는 宋俊浩氏의 언급이 있다. 氏는 ‘士族’을 治者集  
 團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宋俊浩, 「朝鮮兩班考」 『韓國史學』 4, 1983: 『朝  
 鮮社會史研究』 1987, p. 242) 필자는 이에 동감한다.

다.<sup>46)</sup>

같은 관료였음에도 불구하고 金開物은 자신이 ‘土族’임을 내세워 姜融을 멸시하였다. ‘土族’ 출신 관료의 賤系 출신 관료에 대한 반감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인데, 이러한 반감은 賤系 출신 인물들의 활발한 관도 진출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土族’ 출신 관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賤系 출신이 잠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土族’ 출신 관료와 더불어 ‘士林’으로 표기된 인물들도 賤系の 고위직 진출을 비난했다.

有金義光者 亦以內僚 拜將軍 銓選甚濫 時譏職之 (高麗史 123 李之岳傳)

라는 기록은 이와 관련하여 참고된다. 內僚인 金義光이 將軍에 除拜된 사실을 두고 당시의 여론이 기롱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여론을 일으킨 자들이 士林이었음은 다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① 郭預 (中略) 高宗時 擢第一人及第 (中略) (忠烈朝) 累遷版圖正郎實文閣待制知制誥爲必闡赤 入叅機務 士林稱得人 (高麗史 106 郭預傳)

② 蔡洪哲 (中略) 忠烈朝登第 (中略) 拜官閑居凡十四年 (中略) 忠宣素知其名及即位 將大用 強起之 (中略) 八遷爲相 士林榮之 (高麗史 108 蔡洪哲傳)

‘士林’이 郭預의 必闡赤 선발이나 蔡洪哲의 宰相 승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다. ‘士林’이 관리 임명 등에 여론을 일으켰음을 확인한 셈인데<sup>47)</sup>, 그렇다면 이들은 金義光의 將軍職 제배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가 평가를 내렸을 법한 것이다.

‘士林’은 郭預가 必闡赤에 선발되자 사람을 얻었다고 했으며(①), 蔡洪哲이 宰相에 오르자 이를 영광스럽게 여겼다(②) 한다. ‘士林’은 郭預나

46) 李成茂氏도 ‘土族’이 兩班身分層을 지칭하는 용어였음을 지적했다. (李成茂, 『朝鮮初期 兩班研究』 p. 16)

47) ‘士林’의 여론은 ‘土論’으로 표기되었다. 忠宣竄吐蕃 忠肅留元 國人分曹 流言者多 (元) 善之守正不撓 土論多之 (『高麗史』 107 元傳傳 附 善之傳)

蔡洪哲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한편 '士林'은

其(權阻)按慶尙也 晉州副使白玄錫 未之任 先用州吏所賣銀幣 到官 重飲御衣對  
綾羅絲價 私用之 甬州副使張俊 家在丹山 興州近 遣州人耕耨其田 阻並勅之 俊壯  
元及第 玄錫曾爲省郎 同受汚名 士林恥之 (高麗史 107 權阻傳)

라 하여, 壯元及第者인 張俊과 省郎을 역임한 白玄錫이 不法을 행한 것을  
수치로 여겼다 한다. 白玄錫과 張俊이 '士林'과 무관한 인물이었다면, '士  
林'이 그들의 不法을 수치스럽게 여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郭預나 蔡洪哲, 그리고 張俊과 白玄錫은 모두 '士林'이었다고 생  
각된다. 蔡洪哲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의 家系에 관해서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없는 점이 유감인데, 그들이 모두 과거 합격자였다는 사실로<sup>48)</sup> 미  
루어, 이들은 관도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신분적인 제한을 받지 않은 인물  
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49)</sup> 따라서 '士林'은 곧 '士族' 출신의 인물들을  
지칭하는 용어였다고 이해된다.

蔡洪哲은 관직을 떠나 14年 동안 閑居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蔡洪哲  
이 宰相에 오르자, '士林'이 영광스럽게 여겼다 한다. 이로 미루어 보면,  
'士林' 가운데는 관직에 있지 않은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士林' 가운데서 특히 관도에 진출해 있던 인물들은 '士大夫'로 표기했던  
듯하다.

(梁)載 初名將 燕南人 附三錫 賣緣用事 朝野疾之 (中略) 與郎將曹莘卿掌銓注  
交結宦寺 竊弄政柄 請鬪盈門 賄賂公行 士大夫多出其門 (高麗史 124 王三錫傳 附  
梁載傳)

이 기록은 忠肅王代의 것이다. 따라서 忠烈王代와는 시기적으로 약간의

48) 蔡洪哲의 家系에 관해서는 『稼亭集』11 奉議大夫…蔡公墓誌銘 참조. 그의 祖  
는 小府監이었으며, 父는 郎將이었다. 한편 白玄錫이 과거 합격자였음은 그  
가 省郎을 역임했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

49) 과거 급제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許興植, 「高麗의 科擧와 門蔭과의 比較」(『高  
麗科擧制度史研究』) pp. 205~208 참조.

차이가 있다. 그러나 ‘士大夫’에 대한 用例가 忠烈王代와 크게 다르게 쓰여졌을 것 같지 않으므로, 이 기록으로 ‘士大夫’의 用例를 이해해 보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梁載가 행한 銓注가 정상적인 것이 아님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록인데, 주목되는 것은 「‘士大夫’가 그 門에서 많이 나왔다」는 대목이다. 이는 梁載가 행한 銓注에서도 ‘士大夫’가 배출되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士大夫’는 관직에 나아간 인물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기록에서 梁載에 의해 ‘士大夫’가 배출된 사실을 특기한 것은, 그러한 인물이 銓注를 행한 사실 자체가 정상이 아님을 강조한 것과 같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士大夫’가 배출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정상적인 銓注에 의해서 ‘士大夫’가 배출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상적인 銓注에 의해 관도에 진출할 수 있는 인물들은 우리가 검토한 ‘士族’ 출신이었다. ‘士大夫’가 ‘士族’ 출신 인물들로서 관도에 진출한 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였음을 알 수 있다.

‘士大夫’가 ‘士族’ 출신으로 관도에 진출한 자들이었다면, 여기에는 文·武 관료 모두가 포함되었을 것이다. ‘士族’에는 文臣만이 아닌, 武臣 관료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元宗 四年) 左承宣 俞千遇 久執政柄 士大夫皆趨附 (金) 方慶 途遇 揖于馬上 (下略) (高麗史 104 金方慶傳)

이라는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人事權을 장악한 俞千遇에게 당시의 ‘士大夫’가 모두 붙었는데, 金方慶은 그를 만나자 馬上에서 揖만 했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金方慶이 당시의 ‘士大夫’와는 다른 태도를 취했음을 강조한 사료인데, 文脈으로 미루어 金方慶이 ‘士大夫’였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武臣이었던 것이다.<sup>50)</sup>

50) 李成茂氏도 士大夫에는 武臣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李成茂, 前揭書 p. 15)

이제까지의 검토로, 賤系 출신 인물들의 관도 진출에 강한 불만을 품은 계층이 ‘士族’이었으며, 그러한 인물들이 ‘士林·士大夫’였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관도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신분적인 제약을 받지 않은, 기존 관료 계층을 ‘士族’이라고 했고, ‘士族’ 출신의 인물들은 ‘士林’이라고 불렸으며, ‘士林’ 가운데 특히 관도에 오른 인물들을 ‘士大夫’로 지칭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들은 모두 관리의 신분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士族·士林·士大夫’ 등의 용어는 元 간섭 이후만이 아닌, 武臣亂 이전에도 사용되었다.<sup>51)</sup> 다만 문제되는 것은 왜 元의 간섭 이후에 빈번하게 史書에 등장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점 간과해서는 안될 것인데, 이러한 용어들이 신분을 나타내는 것임을 감안하면, 賤系 출신 인물들의 활발한 관도 진출과 무관하지 않았음을 직감할 수 있다. 그들은 이러한 용어로서 자신들을 賤系 출신과 구분하려 했던 것이다.

士大夫는 賤系 출신의 관도 진출, 특히 그들의 정치적 진출에 공동으로 대처하였다. ‘士林’이 여론을 일으켜 賤系 출신의 고위직 임명을 비난했던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아래의 기록을 보자.

置通文館 令禁內學館七品以下 年未四十者 習漢語 時譯者多起微賤 傳語之間 多不以實 懷茲濟私 宰相患之 叅文學事金坵 獻議置之 (高麗史節要 19 忠烈王 2年 5月)

通文館을 설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기록이다. 禁內學館의 7品 이하 관리들에게 漢語를 익히게 한다는 취지 아래 설치한 것이 通文館이었다. 金坵 등이 이의 설치를 건의한 이유는, 당시의 譯官들이 대부분 微賤한 출신이었으므로 통역하는 데 있어 사실을 전하지 않고 私利를 도모한 때문이었다고 위 기록은 전하고 있다. 그러나 譯官의 신분이 微賤했기에 사실을

51) 朴龍雲, 李成茂著 『朝鮮初期 兩班研究』 書評 p. 300. 金光哲, 『高麗後期 世族層과 그 動向에 관한 研究』 pp. 169~178.

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신분이 좋다고 훌륭한 역관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微賤한 신분 출신들이 역관으로 진출하여 국왕의 총애를 차지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당시 士大夫들의 의지가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 한다.

士大夫들은 賤系 인물들에 의한 토지 탈점 역시 강하게 비난하였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기록으로는

僉議府言 公主怯恰口及內僚 慶占良田 標以山川 多受賜牌 不納租稅 請還賜牌 不聽 (高麗史 28 忠烈王 3年 2月 己巳)

을 들 수 있다. 그런데 公主의 怯恰口나 內僚가 良田을 廣占했다는 사실은 이들이 정치 권력의 소유자였거나 정치권력의 비호를 받은 자들이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僉議府가 그들의 토지 탈점을 비난한 것은 곧 그들의 정치적 진출을 비난한 것과 다를 바 없다. 內僚·怯恰口와 함께 鷹坊·宦官 등 賤系 출신 인물들의 토지 탈점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록이 빈번하게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賤系 출신 인물들과 함께 公主의 怯恰口가 여기에 포함된 것이 주목되는데, 그들이 高麗의 ‘士族’ 아닌 蒙古人이었음을 감안하면 무리가 아니다. 公主의 怯恰口 역시 그들의 지위를 침해하는 자들로 士大夫는 판단했을 것이다.

賤系 출신 인물들의 官途 진출에 士大夫들이 공동으로 대처했다는 사실은, 이들이 곧 하나의 정치세력화 했음을 뜻한다. 賤系 출신 인물들의 활발한 관도 진출이 없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賤系의 인물들과 결탁한 士大夫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高麗史 嬖幸傳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高麗史 嬖幸傳에는 鷹坊·內僚와 함께 상당수의 士大夫들이 수록되어 있다. 廉承益·李德孫·林貞紀·元卿 등이 그들이다. 廉承益은 政堂文學을 지낸 廉信若의 후손이었으며<sup>52)</sup>, 李德孫은 僕射 李淳牧의子였고<sup>53)</sup>, 元

52) 『高麗史』 123 廉承益傳.

忠烈王의 復位 과정을 통해 본 賤系 출신 관료와 '士族' 출신 관료의 정치적 갈등 219  
 卿은 元傳의 子<sup>54)</sup>였던 것이다. 또한 林貞杞는 과거 급제자였다.<sup>55)</sup> 高麗史  
 撰者가 이들을 嬖幸傳에 수록한 것은 「舊錄」의 그들에 대한 평가를 참고  
 한 때문이었다.<sup>56)</sup> 즉 그들과 동시대인들이 그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기에  
 高麗史 撰者는 이들을 嬖幸傳에 수록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內僚 등  
 과 밀착되어 있었다.<sup>57)</sup> 賤系 인물들과 밀착된 자들에게까지 士大夫는 반  
 감을 느꼈던 것이다.

앞에서 검토한 바 있듯이, 賤系 출신 인물들의 관도 진출에 제재를 가  
 하려 한 諫官들을 忠烈王은 과직시키거나 구금시켰다. 賤系 출신 인물들과  
 의 밀착된 관계로 미루어 보면, 忠烈王의 이러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었는  
 지도 모른다. 그들은 忠烈王의 王權強化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  
 이다. 따라서 士大夫의 賤系 출신 인물들에 대한 불만은 忠烈王의 王權強  
 化, 나아가서는 忠烈王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忠烈  
 王이 王權強化를 위해 설치한 必闕赤를 두고 祖宗의 舊制가 아니라고 하  
 여 많은 사람이 비방했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sup>58)</sup> 必闕赤의 설치를 비난  
 한 사람은 士林이거나 士大夫였을 것이다.

그렇다고 忠烈王의 王權強化에 이들이 제동을 걸 수 있었던 것은 아니  
 다. 忠烈王은 元의 제 2차 日本征伐 이후에는 더욱 확고하게 王權을 다져  
 나갔던 것이다.

忠烈王은 元의 제 2차 日本征伐에 매우 협조적이었다. 그는 日本征伐의  
 1年 前인 同王 6年(1280)에 入元하여 東征 준비에 직접 참여했는가 하면  
 국내에서는 병력과 군량의 확보에 주력하였다.<sup>59)</sup> 이는 元의 제 1차 日本

53) 『高麗史』 123 權宜傳 附 李德孫傳.

54) 『高麗史』 124 元卿傳.

55) 『高麗史』 123 林貞杞傳.

56) 『高麗史』 123 嬖幸傳 序.

57) 廉承益은 內僚 李之珪의 천거에 의해 忠烈王의 총애를 받았고, 李德孫은 內  
 僚와, 林貞杞는 鷹坊과 밀착되어 있었으며, 그리고 元卿은 公主의 佞伶口였  
 던 印侯와 사돈이었다 한다.

58) 以非祖宗舊制人多譏之(『高麗史』 106 金周鼎傳).

征伐 당시 元宗이 취했던 태도와는 상반된 것이었다.<sup>60)</sup> 이처럼 忠烈王이 日本征伐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元으로부터 확고한 정치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함이었다고 생각된다.<sup>61)</sup> 다음을 참고해 보자.

王與忻都·(洪)茶丘議事 王南面 忻都等東面 事元以來 王與使者東西相對 今忻都·茶丘 不敢抗禮 國人大悅 (高麗史節要 20 忠烈王 7年 3月)

忠烈王과 忻都·洪茶丘가 일을 논의하는데, 王은 南面하고 忻都 등은 東面하였다는 것이다. 君臣의 禮를 갖춘 셈이다. 이제까지 元의 使臣과 국왕이 東西로 대등하게 상대했던 것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元과의 관계에 있어서 忠烈王의 지위가 그만큼 격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元과의 관계에 있어서 忠烈王의 격상된 지위는 국내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었다. 이때는 達魯花赤도 폐지되었으므로<sup>62)</sup> 元의 高麗 국정에 대한 간섭이 심하지도 않은 시기였던 것이다. 忠烈王의 王權強化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그가 同王 8年(1282)에 入元侍從臣僚를 功臣에 책봉한 것은 그 단적인 예가 아닌가 한다.

元의 입장에서 볼 때, 忠烈王의 강력한 王權 구축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못되었다. 강력한 王權의 구축은 元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忠烈王에 대한 元의 견제는 뒤따를 수 밖에 없었다. 특히 忠烈王 20年 이후 元의 견제는 노골적인 것이었다.

忠烈王 20年(1294), 元에서는 世祖의 뒤를 이어 成宗이 즉위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忠烈王은

王以四事奏于帝 一請歸耽羅 二請被虜人民 三請冊公主 四請加爵命 (高麗史 31 忠烈王 20年 5月)

59) 金庠基, 『高麗時代史』(東國文化社, 1960) p. 607.

60) 同上書 p. 600.

61) 同上書 pp. 608~609.

62) 達魯花赤가 폐지된 것은 忠烈王 4年의 일이었다. 池內宏, 前掲論文 p. 113.

忠烈王의 復位 과정을 통해 본 賤系 출신 관료와 '士族' 출신 관료의 정치적 갈등 221  
 이라 하여, 4 가지 요구사항을 成宗에게 제시하였다. 成宗은 爵命을 加하  
 는 일만은 보류해 두고 나머지 3 事는 忠烈王의 요구를 허락할 뜻을 비쳤  
 다. 새로운 皇帝와의 관계에서 忠烈王이 기선을 제압한 셈이다.

元の 成宗에게 忠烈王은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로 비쳤을 가능성이 크다.  
 그의 즉위와 더불어 忠烈王이 내세운 요구조건은 高麗의 이익만을 일방적  
 으로 추구한 것이었다. 이러한 忠烈王이었고 보면, 元の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고 成宗은 판단했을런지 모른다. 成宗은 태도를 일  
 변하여 高麗의 요구조건을 모두 거절하는 한편<sup>63)</sup>, 高麗內의 그의 상대역  
 으로 忠烈王을 제쳐두고 世子인 忠宣王을 선택했다. 다음을 참고해 보자.

① 世子至自元 帝冊爲儀同三司上柱國·高麗國王世子·領都僉議使司 賜銀印(高  
 麗史節要 21 忠烈王 21年 8月 戊午)

② 世子署事于都僉議司 世子坐向南 中贊向西 侍郎贊成事以下東 署事訖 詣壽寧  
 宮 王與公主 登涼樓觀之 世子還所館 百官進賀 世子荅拜(同上 9月)

史料 ②에 따르면, 世子인 忠宣王은 忠烈王 21年 9월에 이미 국정을  
 관장하였다. 그가 국정을 관장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元の 정치적 후원이  
 있었다. 그는 귀국과 더불어 儀同三司上柱國·高麗國王世子·領都僉議使  
 司에 冊封되었던 것이다(①). 즉 元은 世子인 忠宣王으로 하여금 高麗의  
 국정을 관장토록 하기 위해 그에게 爵을 내리고 귀국시켰다고 생각된다.

忠宣王의 국정 관장은 忠烈王의 의도와는 상반된 것이었다. 이는

① 流萬戶知都僉議司事韓希愈于祖目島 先是世子之在燕都也 校尉金臣甫訴曰 臣  
 甫(我)<sup>64)</sup> 初從希愈壻洪綏入都 希愈以臣甫(我)背而投邸下 陵虐臣甫(我)妻子 臣甫  
 (我)猶忠於邸下 希愈何人 獨不知有邸下乎 世子銜之 及是白王褫其職 (下略) (高  
 麗史 節要 21 忠烈王 21年 8月)

이라 한 기록이나

63) 『高麗史』 31 忠烈王 21年 2月 癸巳, 5月 丁亥.

64) 이 부분은 金臣甫의 말이므로 '臣甫'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은 모두 '我'로 고  
 쳐져야 할 것이다.

② 世子朝于王 士庶人遮迫擁馬 上書訟冤 馬不得前 世子皆受之 蓋豪勢之家 奪人田民 有司不能聽斷故也 (同上 11月)

라 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校尉 金臣甫에 따르면, 元에서 그가 世子에게 충성을 바쳤다는 이유로 韓希愈가 그의 가족을 박해했다는 것이다. (①) 그런데 韓希愈는 忠烈王에게 충성을 다한 인물이었다.<sup>65)</sup> 金臣甫의 말이 사실인가의 여부는 제쳐 놓더라도, 忠宣王이 그의 말을 믿고 韓希愈의 파면을 忠烈王에게 건의했는가 하면, 곧 이어 유배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忠烈王과 忠宣王의 정치적 갈등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기록이다.

忠烈王 세력에 대한 忠宣王의 반격은, ②의 사료를 통해서 예상할 수 있다. 忠宣王은 訟冤을 바라는 上書를 모두 받아주었는데, 그 대부분은 豪勢之家의 횡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여기서 豪勢之家가 주로 忠烈王의 정치적 비호를 받은 인물들을 지칭했음을 감안하면<sup>66)</sup>, 우리의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것이다.

忠宣王은 世子로서 國政을 관장하기 이전부터 자신의 지지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 같다. 韓希愈가 校尉 金臣甫의 가족을 핍박한 것이 그가 忠宣王에게 投托했기 때문이었다는 것도, 忠宣王의 지지세력이 무시못할 정도로 성장해 있었음을 알려주는 좋은 예가 아닌가 한다. 이러한 忠宣王의 지지세력은, 賤系 출신 인물들의 정치적 진출에 불만을 품은 士大夫가 그 주축을 이루었다고 생각된다. 洪子藩의 경우를 통해서 짐작되는 사실이다.

南陽洪氏인 洪子藩은 전형적인 '士族' 출신이었다. 그는 仁宗代에 左僕射를 지낸 洪灌의 후손으로 그의 父 洪裔는 벼슬이 同知密直에 이르렀던 것이다.<sup>67)</sup> 洪子藩은 忠烈王 22년에 「便民十八事」를 上書하였는데, 주목

65) 希愈自以起自行伍 位至宰輔 感王德 唯務承順 略不規諫 (『高麗史』 104 韓希愈傳)

66) 李起男, 前揭論文 p. 78.

67) 盧鏞弼, 「洪子藩의 「便民十八事」에 대한 研究」 (『歷史學報』 102, 1984) pp. 52~53. 金光哲, 「洪子藩研究」 (『慶南史學』 창간호, 1984) pp. 10~11.

忠烈王의 復位 과정을 통해 본 賤系 출신 관료와 '士族' 출신 관료의 정치적 갈등 223  
 되는 것은 豪勢家の 不法을 비난하는 등, 그 내용이 후일 忠宣王의 즉위  
 교서와 흡사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sup>68)</sup> 洪子藩의 上書와 忠宣王의 즉위 교  
 서가 그 내용이 흡사했다면, 양자의 정치적 견해는 같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sup>69)</sup> 忠宣王의 즉위 교서가 그의 정치적 포부를 밝힌 것이었다면, 洪子  
 藩의 上書는 洪子藩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洪子藩은 忠烈王 20년에 僉議中贊에 올랐고, 同王 21년에는 僉議令이  
 되었다.<sup>70)</sup> 臣下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관직에까지 오른 셈이며, 따라  
 서 忠烈王代의 정치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가 「便民  
 十八事」에서 비난한 豪勢家は 주로 鷹坊·佞伶口·內豎微賤者를 지칭하는  
 것이었다.<sup>71)</sup> 즉 賤系 출신 관료들의 불법을 洪子藩은 비난했던 것이다.  
 忠烈王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한 洪子藩이었지만, 賤系 출신 인물들의 정  
 치적 진출에 대해서는 士大夫들과 견해를 같이하여 이를 비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高麗의 정치 상황을 元에서 고려하지 않았을 까닭이 없다. 忠烈  
 王은 元을 배경으로 高麗에서 강력한 王權을 행사했으므로, 忠烈王에 대  
 한 불만은 元에 대한 불만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高麗에 정치적인 불만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元으로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元의 成宗이 忠烈王을 제쳐두고 忠宣王을 자신의 상대  
 역으로 택한 이면에는 高麗 士大夫의 忠烈王에 대한 불만도 간과되지 않  
 았다고 생각한다.

元의 비호와 아울러 忠烈王 반대세력의 지지를 받은 忠宣王의 정권 장  
 악은 당연한 것이었다. 忠宣王은 忠烈王 23年 6月, 齊國大長公主의 죽음을  
 계기로 宦者將軍 崔世延 등 忠烈王의 심복들을 제거했는데<sup>72)</sup> 이후 정

68) 盧鏞弼, 上揭論文 pp. 56~59.

69) 金光哲, 「洪子藩研究」 pp. 11~12.

70) 盧鏞弼, 前揭論文 p. 33.

71) 同上論文 p. 50.

72) 이에 관해서는 金成俊, 「高麗後期 元公主出身王妃의 政治的 位置」 pp. 154~161

치권력은 이미 忠烈王의 손에서 떠나 있었다. 忠烈王은 마음에도 없는 讓位表를 元에 올리고<sup>73)</sup>, 王位를 忠宣王에게 물려줄 수 밖에 없었다.

#### Ⅳ. 元의 政治的 干涉 증대와 忠烈王의 復位

忠烈王의 讓位로 즉위하게 된 忠宣王은, 忠烈王의 讓位와 자신의 즉위가 정당한 것임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 국왕이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世子가 王位에 오른 데 대한 변명이 없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사실 忠烈王의 讓位는 그러한 형식만을 밟았을 뿐, 실제로는 讓位를 강요당했다고 해야 옳은 것이었다. 忠烈王代의 정치가 跋行的인 것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은, 忠烈王의 讓位가 정당한 것임을 주장하는 방법의 하나일 수 있을 것이다. 忠烈王代의 불법을 일일이 열거해 놓은, 忠宣王의 장황한 즉위 교서가 반포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忠烈王의 즉위 교서에는 忠烈王代에 폐단을 일으킨 인물들을 勢家·自利爲先者·豪猾之徒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들은 주로 鷹坊·怯恰口·譯官·內僚 등을 지칭하는 것이었다.<sup>74)</sup> 즉 우리가 검토한 바 있는, 賤系 출신으로서 고위직에 오른 인물들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다. 사실 自利爲先者·豪猾之徒 등의 표현이 매우 비하적인 것임을 감안하면, 忠烈王代 高位官吏 모두를 이러한 식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忠宣王이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밝힌 즉위 교서에서 賤系 출신 인물들의 불법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자신의 政權에서는 이들을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다름이 없다. 政房의 폐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 참조.

73) 忠烈王의 讓位表를 작성한 인물은 鄭可臣이었는데, 그가 작성한 讓位表는 忠烈王의 본 뜻과는 달랐다 한다. (『高麗史』 105 鄭可臣傳)

74) 李起男, 前揭論文 p. 65.

忠宣王은 政房을 폐지하고 詞林院의 四學士로 하여금 銓注를 관장케 하였는데<sup>75)</sup>, 政房 내에 설치된 必闕赤가 忠烈王의 王權強化를 추진한 핵심적인 기구였고, 여기에 內僚 등 賤系 출신 인물들이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음을 감안하면 당연해 보인다. 內僚 李之氏가 必闕赤의 설치를 추진했는가 하면, 必闕赤의 임명에도 그가 관여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구를 존속시킨다면, 內僚와 같은 賤系 출신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합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忠宣王이 銓注를 관장시킨 詞林院의 四學士는 누구보다 忠宣王과 밀착된 인물들이었을 것이다. 人事權의 장악이야말로 政權 장악의 전제조건이기에, 인사행정을 담당한 관료들이 忠宣王과 정치적 성격을 같이 한 자들이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또한 忠宣王의 즉위 교서가 위의 四學士, 즉 朴全之·崔崑·吳漢卿·李瑱 등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도<sup>76)</sup> 주목되어 마땅하다. 그들의 정치적 성격이 忠宣王의 정치에 반영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忠宣王은 忠烈王代에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던 인물도 중용하였다.

① (忠宣)王下書徵前司諫李承休(中略)時承休隱居三陟縣龍溪別業 上章辭以老病 王復下書云 寡人素聞卿名 思欲共治 今授卿詞林侍讀左諫議大夫 充史館修撰官 知制誥 幸爲蒼生一起 承休乃來(高麗史節要 22 忠烈王 24年 2月)

② 蔡洪哲(中略)忠烈朝登第(中略)拜官閑居凡十四年(中略)忠宣素知其名及即位 將大用 強起之 除司醫副正(下略)(高麗史 108 蔡洪哲傳)

忠宣王은 즉위와 더불어 三陟縣에 은거하고 있던 李承休를 불러 관직을 제수하였다(①). 李承休는 일찌기 殿中侍史로서 時事를 論했다가 忠烈王에 의해 파직되었다.<sup>77)</sup> 그가 三陟縣의 別業에 은거한 것은 이 사건 이후였다고 생각된다. 한편 ②의 기록에서, 과거에 급제한 蔡洪哲이 관직을

75) 『高麗史節要』 22 忠烈王 24年 4月.

76) 李起男, 前揭論文

77) 高麗史 29 忠烈王 6年 3月 乙卯.

버리고 14年 동안 閑居했던 이유는 분명치 않다. 다만 벼슬 자체를 싫어했던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忠宣王이 부르자 곧 나아간 사실로 미루어 그러하다. 忠烈王代의 정치상황에 염증을 느꼈기 때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순조로와 보인다. 賤系 출신 인물들의 정치적 진출이 그로 하여금 벼슬을 버리게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忠宣王이 重用했다는 李承休나 蔡洪哲은 士大夫였다. 忠宣王이 銓注를 담당시킨 詞林院의 四學士도 마찬가지였다. 그들 역시 과거 출신이었던 것이다. 忠宣王 즉위 이후의 정치가 士大夫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당시 대부분의 士大夫는 아직은 元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權力의 핵심에 접근해 있었던 것도 아니고, 入元할 기회 역시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다. 더구나 그들은 高麗의 전통적인 제도 아래서는 정치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元의 干涉이라는 특수한 상황 아래서는 賤系 출신 인물들에게 그들의 지위를 양도해야만 했었다. 이러한 士大夫에 의해 추진된 정책은 元의 이익과는 상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忠宣王은 즉위 이후 두차례에 걸쳐 관계 개혁을 단행하였다. 기존의 관계, 즉 元의 간섭으로 인해 고쳐지기 이전의 관계에 中國 歷代의 관계를 참작한 것이었다.<sup>78)</sup>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元에 의해 바뀌어진 관직의 명칭을 원래의 칭호대로 복구한 것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sup>79)</sup> 이러한 명칭의 복구는 곧 내용상의 복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단순한 명칭만의 복구가 아닌, 제도 자체의 복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士大夫에 의해 고쳐진 관계가 高麗의 전통적인 것이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된다.

士大夫와 忠宣王에 의해 추진된 정책이 高麗의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었

78) 金庠基, 『高麗時代史』 p. 637.

79) 同上.

忠烈王의 復位 과정을 통해 본 賤系 출신 관료와 '士族' 출신 관료의 정치적 갈등 227

음은 忠宣王의 功臣冊封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忠宣王은 그의 즉위 교서에서, 親從行李로서 功臣이 된 자는 功臣이라고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었다.<sup>80)</sup> 일찌기 忠烈王이 자신을 侍從했던 인물의 경우, 비록 賤系라 하더라도, 그들의 仕路를 許通하고 功臣으로 冊封한데 대한 반발이었다. 한편 忠宣王은 마땅히 자손들에게 특혜가 주어져야 할 功臣의 명단을 매우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祖代功臣之內外五世玄孫之子 代代配享功臣內外五世玄孫之曾孫 太祖代衛社戰亡金樂·金哲·申崇謙及能使丹兵還退徐熙·河拱辰·盧戩·楊規等內外孫與玄孫中一各許初入仕 顯宗南幸時有功者及始終隨從功臣與西京·興化·龜·宣·慈州·仇比江·盤領成功戰亡者·交戰將按典軍人等內外孫與玄孫中一名 例許初職(中略) 癸巳年 南路捉賊李子辰·宣諭使鄭義·朴錄全 甲午年 西京兵馬使閔曦 丁酉年 南路逆賊處置使金慶孫 皆於內外孫中 許初職錄用(高麗史 75 選舉志 3 銓注 凡叙功臣子孫 忠宣王即位教曰)

太祖 이래의 配享功臣 자손과 外賊의 褫職을 格퇴하는 데 功을 세운 인물들의 자손, 그리고 국내의 반란 진압에 功이 컸던 인물들의 자손에게 벼슬을 내린다는 내용의 기록이다.太祖 이래 配享功臣의 자손에게 入仕를 허락한다는 詔書는 忠宣王에 의해 비로소 내려진 것이 아니었다. 국왕의 즉위시에 흔히 나타나는 것이다.<sup>81)</sup> 그러나 外賊의 格퇴와 반란의 진압에 功이 큰 인물들의 자손에게 이처럼 대폭적으로 入仕를 허락한 예는 드물다. 더구나 여기에는 일반 軍人으로서 戰亡한 인물들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元과의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된 인물들보다는, 高麗의 社稷을 지켜온 인물들만이 功臣에 책봉될 수 있고 그들의 자손이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忠宣王의 의지가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 한다.

忠宣王의 즉위 이후 高麗가 취한 일련의 정책은 元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80) 李起男, 前揭論文 p. 66.

81) 『高麗史』 75 選舉志 3 銓注 凡叙功臣子孫 참조.

徹里遷自元 元又遣右丞阿里灰·洪重喜·左丞楊炎龍來(中略)又往監察司 收新定官制(高麗史節要 22 忠烈王 24年 6月)

元の 사신이 高麗에 온 중요한 목적은 趙妃의 公主咀呪 사건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元의 사신들이 高麗의 新定官制 서류를 압수했다는 것이다. 이는 忠宣王에 의한 관제 개혁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과 같다. 忠宣王의 관제 개혁이 元의 비위를 거슬렀음이 분명하다. 元은 高麗의 이러한 태도를 元의 지배를 부인하는 것으로까지 파악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한편, 高麗 국내에도 忠宣王의 즉위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있었다. 忠烈王 21年, 忠宣王이 世子로서 國政을 처리하다가 3개월만에 다시 入元했던 사실만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때 忠宣王이 入元한 구체적인 이유는, 기록에 없지만, 忠烈王派의 반발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sup>82)</sup> 여기에는 賤系 출신 인물들만이 아닌, 상당수의 士大夫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齊國大長公主의 죽음이 뒤따르지 않았다면, 忠宣王의 즉위는 불가능했을런지도 모른다. 오랫동안 강력한 王權의 비호를 받고 성장한 忠烈王의 세력이 만만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忠烈王의 王權強化에 기여한 賤系 출신 인물들 가운데는 元의 정치세력 특히 元의 宦官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검토한 바 있는데, 다음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李仁琪)以武勇 顯爲護軍 疾重房諸將枯勢使氣 抗辱之 諸將訴忠宣 忠宣雖直仁琪 以諸將皆上國婦寺黨 不得已削仁琪職(高麗史 108 李仁琪傳)

이 기록이 忠烈王 24年의 것인가 아니면 忠宣王이 다시 즉위한 이후의 사료인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重房의 諸將이 元의 宦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이 정도의 시간적인 차이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忠烈王의 復位 과정을 통해 본 賤系 출신 관료와 ‘士族’ 출신 관료의 정치적 갈등 229  
 것이다. 「元 宦官의 黨」이라고 표현된 「重房의 諸將」이 누구였는가가 궁금한데, 분명한 것은 鷹坊·宦官·譯官·內僚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武班으로 出仕路를 택한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이다.<sup>83)</sup>

이처럼 元의 宦官들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忠烈王의 비호를 받아온 인물들은, 元 宦官들의 힘을 이용하여 忠宣王을 退位시키려 했을 것이다. 이에 그들이 일으킨 것이 趙妃의 公主阻呪事件이 아니었나 한다.<sup>84)</sup>

한편 元도, 高麗 국내의 忠宣王에 대한 불만세력을 그들 나름대로 이용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今聞莅政以來 頗涉專擅 處決失宜 衆心疑懼 (高麗史 31 忠烈王 24年 8月 癸酉)

라는 기록이 참고된다. 元이 忠宣王을 退位시키고 忠烈王을 復位시키면서 내린 詔書의 일부이다. 忠宣王이 處決에 적절함을 잃어 衆心이 疑懼했다는 것이, 元이 내세운 忠宣王의 退位 이유이다. 이 기록에 보이는 衆心の 「衆」은 곧 忠宣王의 즉위로 정계에서 소외된 忠烈王의 측근들이었을 것이다. 元은 忠宣王의 정책에 대한 그들의 불만을 감춘채, 高麗 국내 정치세력의 불만을 忠宣王 廢位 이유로 내세웠던 것이다.

忠烈王의 復位 후 元은 闕里吉思로 征東行中書省平章事를 삼고, 耶律希逸로 左丞을 삼아 忠烈王과 함께 高麗를 통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元에서는 국왕이 지켜야 할 몇가지 사항을 忠烈王에게 제시하였는데, 그 가운데 이라는 조목은 특히 주목된다. 罪人을 마음대로 罪주지 말고 반드시 元에 사건의 전모를 보고하라는 것이다. 叛逆罪를 범했다 하더라도 高麗의 국

命官有罪 須具事情本末聞奏 毋得輒行殺戮 (高麗史 31 忠烈王 25年 4月 辛亥)

82) 金成俊, 前掲論文 p. 155 및 李起男, 前掲論文 p. 78.

83) 洪承基, 「元의 干涉期에 있어서의 奴婢出身 인물들의 政治的 進出」 pp. 361~362.

84) 이에 관해서는 金成俊, 前掲論文 pp. 161~169 참조.

왕은 이를 처벌할 수 없게 된 셈이다.<sup>85)</sup>

元に 의한 忠烈王의 復位는 高麗의 정치세력을 또 다시 양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忠烈王派와 忠宣王派가 그것이다. 따라서 이후 高麗의 정치사는 賤系 출신 관료와 士大夫간의 정치적 갈등이 지속된 가운데, 忠宣王이 다시 王位에 오를 때까지 忠烈王派와 忠宣王派의 대립 양상으로 일관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高麗에 대한 元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증대되어 갔다. 모든 정치세력이 국내에서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元을 등에 업었기 때문이다. 高麗의 정치는 元의 조종에 따라 움직여질 수 밖에 없었다.

## V. 結 語

지금까지 필자는 忠烈王의 復位 과정에서 드러난 賤系 출신 관료와 ‘士族’ 출신 관료 간의 정치적 갈등을 검토해 보았다. 그러한 가운데서 士大夫의 개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접근이 가능했다. 본고에서 얻어진 사실은 대략 다음과 같다.

忠烈王代에는 賤系 출신 인물들의 정치적 진출이 두드러졌다. 그들은 鷹坊·譯官·宦官·內僚 등으로 활동했었다. 忠烈王은 鷹坊으로 하여금 자신의 시위를 담당시켰는가 하면, 譯官과 宦官은 對元外交에 이용했고, 그의 즉위 이전부터 자신에게 충성을 바쳐온 內僚는 王權強化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必闡赤와 中閏色에 참여시켰다. 賤系 출신 인물들은 忠烈王의 王權強化에 기여하므로써,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賤系 출신 인물들의 정치적 진출은, 관료가 되는 데 있어서 신분적인 제약은 받지 않은 계층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賤系 출신 인물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관리가 될 수 있음을 내세우려고 하였다. 이 시기에 ‘士族’·‘士林’·‘士大夫’ 등의 용어가 빈

85) 忠烈王의 復位 이후 元의 정치적 간섭이 증대된 사실에 대해서는 高柄翔, 「麗代 征東行省의 研究」(上) (『歷史學報』 14, 1961) pp. 63~65 참조.

忠烈王의 復位 과정을 통해 본 賤系 출신 관료와 ‘士族’ 출신 관료의 정치적 갈등 231  
 번하게 史書에 등장한 것은, 이처럼 신분에 하자가 없는 인물들이 자신들과 賤系 출신 관료와를 구분하려는 데서 비롯되었다. 즉 관료 계층이라는 의미로 ‘士族’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士族’ 출신의 인물들을 ‘士林’이라고 했고, 이들 가운데 특히 官途에 진출한 인물들을 ‘士大夫’라고 했던 것이다.

賤系 출신 인물들의 정치적 진출에 대한 士大夫의 불만은 忠烈王의 王權強化에 대한 불만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었다. 忠烈王의 비호에 의해 賤系 출신 인물들의 정치적 진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忠烈王은 元の 제 2차 日本征伐 이후 더욱 강력한 王權을 구축해 나갔다. 이러한 忠烈王을 부담스럽게 여긴 元은, 高麗 국내 士大夫들의 忠烈王에 대한 불만을 들어, 忠宣王으로 하여금 王位를 계승하게 하였다.

忠宣王이 즉위한 이후, 정치의 주도권은 士大夫가 장악하였다. 그들에 의해 추진된 정책은 高麗의 전통을 고수하는 것으로서, 이는 元の 비위를 건드리기에 족하였다. 여기에 元の 정치세력과 연결된 忠烈王派의 책동으로, 忠宣王이 退位되고 忠烈王이 復位하였다. 이후 고려의 정치사는 元の 간섭이 증대된 가운데, 士大夫와 賤系 출신 관료의 갈등과 아울러, 忠烈王派와 忠宣王派의 대립양상을 띄며 전개되었다.

이상과 같은 본고의 결론에 큰 잘못이 없다면, 우리는 士大夫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되었다.

士大夫는 기존 관료들과 하등 다른 존재가 아니었다. 同質의인 존재들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忠烈王代에 하나의 정치세력화하였다. 賤系 출신 인물들과 蒙古人 등으로부터 그들의 지위를 위협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忠烈王代 士大夫 세력의 등장은 賤系 출신 인물들의 정치적 진출이 두드러진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士大夫의 개념이 이러한 것이라면, 元 간섭 이후 高麗末까지의 정치적 지배세력을 權門勢族 혹은 權門世族<sup>86)</sup>과 士大夫로 양분하는 것은 재검토

86) 李基白, 『韓國史新論』 改正版 (一潮閣 1975) p.191 에는 權門勢族으로, 그리

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權門世族의 대부분을 점한 것으로 이해되어 온, 忠宣王 즉위년의 교서에 나타난 '宰相之宗'은 곧 전형적인 士大夫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性理學 수용 이후의 士大夫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같은 士大夫라 하더라도 性理學의 수용 여하에 따라 그들은 정치적 성격을 달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고 閔賢九, 「高麗後期の 權門世族」에는 '權門世族'으로 표기되어 있다.